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음 6월 2일) 제23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내년 21대 총선... 전북 정치권 향방 - 상

# 특정 정당만 찍어 온 전북 민심은 어디로?

글 쓰는 순서

상·특정 정당만 찍어 온 전북 민심

중·평화당 편중포인트 '정계개편'

하·내년 총선, 전북 정치 시금석 '주목'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총 10석 가운데 국민의당에게 7석을, 새누리당에게 1석을 내 주며 녹색불꽃의 진양지로 떠올랐다.

수 십여 년 간 민주당을 지지해온 전북도민이 전북 발전을 등한시한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를 내 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부 4년 차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들은 선거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의 보완을 위한 '국정안정론'을,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은 '자강론'과 '3지대론'에 의한 야권발 정계개편을 내세우며 칼을 갈고 있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명운을 걸린 혈투가 예상된다.

된다. '수성' 입장의 평화당과 '덧발'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치열한 경쟁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바라보는 민주당과 평화당의 전북 총선 기상은 어떤가.

우선 민주당에 대한 총선 '낙관론' 속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선 위기론은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8월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셋째 주 정기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발표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긍정 60%, 부정 25%)과 부산·울산·경남(긍정 77%, 부정 15%) 지지율을 보였다.

특정지역 지지율이 2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 '수성' 평화당, '자강론'·'3지대론' 등에 의한 야권발 정계개편 내세워

'전북 홀대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정부 초반에 비해 1K와 1P를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긍정 27%, 부정 63%), 부산·울산·경남(긍정 43%, 부정 50%)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 역시 긍정(45%)보다 부정(47%)이 높았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에 비해 낙폭이 큰 수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해당 지역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군벌을 때야 하는 이유다.

'집토끼'인 전북과 호남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성장한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위해 집토끼 '관리'보다는 '산토끼' 잡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중간 심판 선거"라는 프레임 속에 치러질 총선의 심판 항목이 '경제'와 '대북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며 "여기에 고사상태인 전북 경제 책임론과 홀대론까지 번질 경우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민형 기자

## 고하문학과, 공공도서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선정

전주시 고하문학과에 소장된 고문헌들이 디지털적으로 다시 태어나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문화유산을 선정해 디지털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존 가능한 지역 문

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하문학과는 앞서 지난 9월 '고문헌 정리 및 관리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요 고서 169종 236권을 선별했으며 이번 공모

과정에서 선별된 고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디지털화 지원까지 받게 됐다.

한편 고하문학과는 고하 최승범 교수가 자신의 소장자료를 전주시에 기부한 후 전주한옥마을에 조성된 문화관으로, 현재 5만여 권의 장서와 500여점의 서예·그림 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주간 기념식

3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에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송병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인,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 교육공무직 파업,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급식 중단사태로 도내 학생·학부모 불편 가중  
도교육청, 교육활동 혼란 최소화 매뉴얼 시달  
교직원 등 협조로 큰 지장 없이 교육활동 이뤄

3일부터 시작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인 교육공무직원의 파업으로 인한 도내 각 학교들의 급식 중단사태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비 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한 보고체계 및 대응체제를 일원화 하도록 했으며, 문제상황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뉴얼을 작성 각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파업은 총 793개교 7,571명 중 369개교 1,243명(16.4%)이 참여해 총파업이 진행 중이지만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로 큰

지장 없이 학교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자 585명, 특수교육지도사 22명, 돌봄전담사 292명 등이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급식학교 총 788개교 중 정상운영학교는 563개교며, 파업으로 대체급식 실시학교는 196개교, 급식미실시학교는 29개교다. 또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중 대체급식으로 도시락자랑학교는 47개교, 빵음료 등 대체급식 제공학교는 129개교, 기타 20개교다. 급식 미실시 사유로는 정기교사실시 14개교, 학사일정 조정 15개교다.

또한 방과후 유·초등 돌봄운영학교 총 780개교 중 미운영학교는 41개교로써 돌봄전담사 770명 중 292명이 파업에 참여했지만 담임교사 및 교직원들

의 대체근무로 739개교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특수학교 10개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수교육지도사 336명 중 22명의 소수 인원 파업참여로 담임교사 및 통합 학습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4일, 5일 계속해서 예정돼 있지만 파업 기간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성실히 임할 것이며, 파업이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4면 -전주형 중기 특화분야 지원 협약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